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전남 성장엔진 '톡톡'

식품 제조 204곳 등 321개 매출 470억·일자리 2700개 창출

도 마을기업 등 90곳 '가고 싶은 섬' 특화...주민 소득안정 계획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낙후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여성·다문화가정·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연대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구도를 만들어 지역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그간 식품 제조 부문의 사회적 기업 등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부터 '가고 싶은 섬'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부문을 특화·육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은 139개(인증 69개·예비 70개), 마을기업은 182개(인증 122개·예비 60개)로 모두 321개다.

예비 사회적(마을) 기업이란 사회적(마을)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사회적(마을)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식품 제조가 204개(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반상품 서비스 66개(20%) ▲관광·체험 27개(8%) ▲

문화·예술 15개(5%) ▲기타 9개(3%) 등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선순환적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470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은 모두 2700개다.

전남도는 올해 사회적 기업(50개)과 마을기업(40개) 등 90개(인증 40개·예비 5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특히 '가고 싶은 섬'을 주제로 문화·관광·체험 기업을 특화·육성해 섬 지역 주민 소득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방식으로 육성될 '가고 싶은 섬' 특화사업은 올해 3개 군, 5개 섬 마을이 참여했다.

완도 미라리는 폐교를 활용한 민박 및 해조제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진도

관매도와 관매하늘다리 마을은 특산물 판매 및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안 반월리와 천사의 다리 섬마을은 갯벌 및 둘레길 등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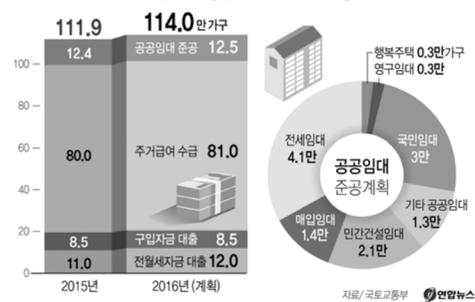
전남도는 사회적(마을) 기업의 경우 사업 전개, 수익 창출,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감안, 섬과 숲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한 사회적(마을) 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것"이라며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자리매김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부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6년 주거종합계획' 주거지원방안



공공임대 12만5천가구 공급 무주택 114만 가구 주거지원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이 처음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전신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 인허가 계획이 중심이었다면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공급계획 등 주거지원방안이 골자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망라됐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 3000원으로 2.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대출로 12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 지원하고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8만5000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팀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우대 폭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디딤돌대출도 금

리우대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를 공급(준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전체 주거지원 대상도 작년 111만9000가구보다 2만여가구 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도 정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대기하는 사람이 3만6000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이 1년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부적정계층의 퇴거를 유도해 '입주순환률'을 높인다.

연합뉴스

北 무수단 탄도미사일 또 실패

이동식 발사대서 폭발한 듯

북한이 지난 31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 지난달 세 차례 실패에 이어 네 번째 실패다. 이번에는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20분경 강원도 원산지역에서 불상(기종을 알 수 없음) 미사일 1발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 상황을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발사 실패한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이날 발사를 시도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 순간 이동식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이란 액체연료에 독성이 강한 질산을 산화제로 사용하고 있어 발사 차량 인근의 지원 요원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전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 한미 군 당국이 발사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최초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앞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 보완해 한 달여만에 다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실패하면서 중거리미사일 기술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관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31일 오후 동구 금남로 YMCA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및 관계자, 학생들이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세돌-가수 김장훈 이달말 독도서 바둑 대국

가수 김장훈과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바둑 보급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독도에서 특별대국을 벌인다.

김장훈의 소속사 공연세상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장훈과 이세돌 9단이 6월 말 독도에서 바둑 특별대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날씨에 따라 독도 입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국 일자는 6월 28~3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세상에 따르면 이번 대국은 2인 1조의 페어 바둑 형식으로 치러진다. 김장훈과 여류기사가 한 팀, 이세돌 9단과 여자 아마기사가 한 팀을 이뤄 대결에 나선다.

또 스폰서십을 통해 받은 후원금을 우승팀과 준우승팀에 차등 지급하고 상금은 전액 기부하게 된다. 공연세상 측은 참가 대국자, 상금 규모와 후원 용도 등이 정해

지는 대로 따로 알릴 계획이다.

이번 대국은 김장훈이 이세돌 9단에 제언해 성사됐다. 김장훈은 "이세돌 9단이 한국 바둑을 위해 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을 받았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독도에서의 특별대국 제안에 이세돌 9단은 "한국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섬에서 바둑 한판 두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며 흔쾌히 응했다고 공연세상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지원서비스 시범사업

1~6등급으로 나뉜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장애인의 욕구·환경·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도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는 각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 현재 6단계로 나뉘어 있는 장애 등급을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해 적용하거나, 서비스별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本 社 人 事

- ▲전봉헌: 중부취재본부 영암주재 기자
- ▲박형진: 서부취재본부 영광주재 기자 (6월 1일자)
- ▲대성수(중부취재본부 영암주재) 의원면직 (5월 31일자)

感謝 말씀

이번 (주)대광건설 창업주 故 조왕석(曹王錫) 회장님 喪事時에公私多忙 하심에도 鄭重하신 弔意와 慰勞를 주셔서 순조로이 喪事를 치를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慌忙中이오라 일일이 찾아뵙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우선 지면을 빌어 머리숙여 感謝人事를 드립니다. 귀택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訴願 합니다.

미	망	인	안	원	선	손	녀	조	연	우	외	손	자	김	현	육
자	조	영	훈	손	녀	조	다	연	외	손	녀	김	윤	아		
녀	조	혜	진	자	부	최	윤	정	안	지	민					
녀	조	서	영	사	위	김	중	범	안	지	원					
손	자	조	창	희	사	위	안	동	균							

2016. 6. 1 拜上

주식회사대광건설
홀리데이인광주호텔